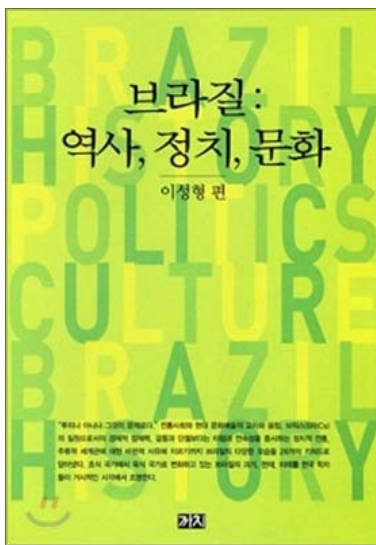




■ 브라질 : 역사 · 정치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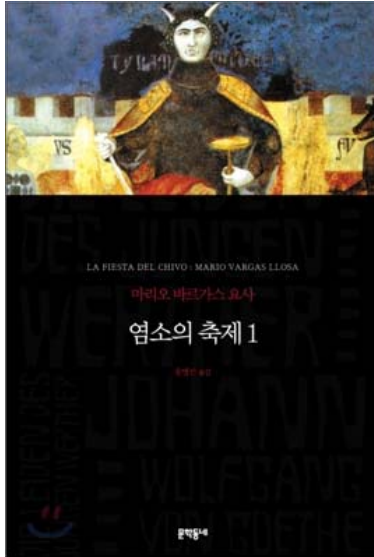


이성형 (엮은이)
 출판사: 까치글방
 출간일: 2010-08-25
 ISBN(13): 9788972914891
 반양장본 | 424쪽 | 153*224mm

브라질의 역사와 정치, 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한 책이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활한 영토 등 여러 모로 축복받은 나라 브라질은 21세기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만큼 브라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권위자 이성형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교수가 한-브라질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내 브라질 연구자와 관심 독자의 저변을 넓히고, 연구역량과 수준을 점검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획했다.

19명의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들이 아마존, 룰라, 브릭스, 커피, 삼바, 영화, 축구 등 흥미로운 2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브라질의 이모저모를 살핀다. 전통사회와 현대 문화예술의 교차와 융합, 브릭스 일원으로서의 경제적 잠재력, 타협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전통, 주류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브라질의 다양한 모습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 염소의 축제 1·2



원제: La Fiesta del Chivo (2000)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지은이) | 송병선 (옮긴이)

출판사: 문학동네

출간일: 2010-10-27

ISBN(13): 9788954613170

양장본 | 336쪽 | 137*203mm

마리노 바르가스 요사의 역작으로, 32년간 도미니카공화국을 통치해온 독재자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히요의 암살 과정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사건은 트루히요의 총애를 잃은 장관의 딸 우라니아, 독재자를 죽이려는 암살자들, 그리고 트루히요, 세 사람의 시점에서 각각 새롭게 구성된다. 독재자로 인해 삶 전체가 파멸당한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폭군의 이미지 아래 감춰진 트루히요의 교활하고 우스꽝스러운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염소의 축제'라는 제목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목에 등장하는 '염소(el Chivo)'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이 트루히요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던 별명이다. 한편으로 보면 '염소의 축제'는 독재자가 권력을 영속시키기 위해 벌이는 방탕한 희생 제의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체제의 전복을 꿈꾸는 일단의 암살자들에게 독재자 '염소'의 죽음은 곧 축제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독재자가 벌이는 '염소의 축제'는 실패로 끝나고, 독재자의 피를 요구하는 '염소의 축제'만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권력 구조의 지도를 그려내고 개인의 저항, 반역, 좌절을 통렬한 이미지로 포착했다는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이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호흡



원제: Respiración artificial (1980)

리카르도 피글리아 (지은이) | 엄지영 (옮긴이)

출판사: 문학동네

출간일: 2010-08-23

ISBN(13): 978895461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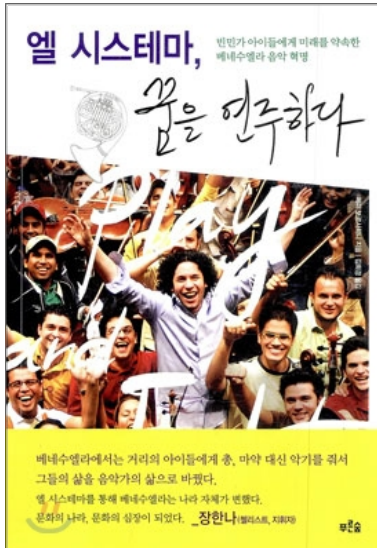
양장본 | 360쪽 | 148*210mm

국내에 첫선을 보이는 아르헨티나 작가 리카르도 피글리아의 문제작이다.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 정권이 지식인과 작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건인 ‘추악한 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 출간된 이 소설은 한 청년 작가가 수수께끼에 싸인 삼촌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 아르헨티나가 앓고 있는 고통의 기원을 모색한다.

세계의 광기에 내재하는 수수께끼, 혹은 역사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 제임스 조이스, 히틀러, 카프카 등 실존 인물들이 허구의 영역으로 들어가 문학과 역사,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가운데 역사의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문학이 어떤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작품이다.

탐정소설, 서간소설과 르포가 결합된 새로운 형식과 복잡한 구조임에도 출간 당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보르헤스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던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작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훌륭한 10대 소설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 엘 시스테마, 꿈을 연주하다



원제: Venezuela sembrada de orquestas (2004)

체피 보르사치니 (지은이) | 김희경 (옮긴이)

출판사: 푸른숲

출간일: 2010-08-20

ISBN(13): 9788971848425

반양장본 | 275쪽 | 223*152mm

엘 시스테마는 1975년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최초의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립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빈민가의 차고나 창고를 전전하며 연습하던 오케스트라는 국내외 성공적인 공연을 통하여 성장하였고 오케스트라 멤버들은 전국 각지에 음악 교육 센터를 세워 빈민가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사회경제적 빈곤 계층으로, 가난과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며 비로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이 책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 그리고 꿈을 다른 사람에게 ‘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준다. 엘 시스테마가 베네수엘라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한 것처럼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 또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 침대에서 바라본 아르헨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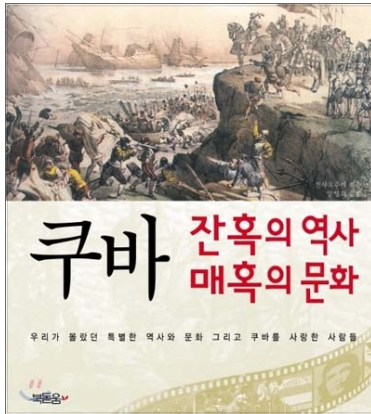
루이사 발렌수엘라 (지은이)
 | 조혜진 우석균 박병규 (옮긴이)
 출판사: 소명출판
 출간일: 2010-09-25
 ISBN(13): 9788956265254
 반양장본 | 277쪽 | 140*210mm

현대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하며 세계적 명성을 누리고 있는 작가 루이사 발렌수엘라(Luisa Valenzuela)의 중·단편소설 모음집이다. 작가는 섹슈얼리티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에 대한 기

억을 계속해서 소환하여 이를 여성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인간의 부조리, 권력에 대한 욕망, 정치권력과 문화 권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형상화하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 온 발렌수엘라의 진정한 작품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쿠바, 잔혹의 역사, 매혹의 문화



천샤오추에 (지은이) | 양성희 (옮긴이)

출판사: 북돋움

출간일: 2007-11-01

ISBN(13) : 9788992573047

반양장본 | 216쪽 | 205*185mm

출판된 지 3년이 지나 현재는 절판되었지만 라틴아메리카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스페인 인의 정복 이후 현재까지 500여년의 역사를 포괄하면서도 서술이 매우 간명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또 페이지마다 한 장 이상의 사진을 첨가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쿠바 중국인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흑인노예의 대체 노동력으로 쿠바에 첫 발을 디딘 중국인은 쿠바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도, 이 책만큼 면수를 할당하여 서술하는 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저자의 주장처럼 현재 쿠바에서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문화의 특색을 살려 쿠바 다원화 문화의 일부로 훌륭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1990년대 말까지도 쿠바 정부는 ‘인종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중국적인 색채의 문화 행사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도 한계가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쿠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구권이 몰락한 이후 아직도 진행 중인 쿠바의 잔혹사와 한낱 추억거리로 쇠락하는 조짐을 보이는 매혹의 문화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쿠바인들의 삶이 누락되었다.